

스리랑카·파키스탄 목회자들 방문

스리랑카·파키스탄 목회자들이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 하계수련회 등에 직접 참석한 뒤 만민의 사역에 놀라며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

일곱 교회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는다.

사데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2)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와 그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쓰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무안단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파키스탄 샘스 제이콥 목사와 일본 아쿠시치 카즈미 권찰이 전하는 무안단물을 통한 치료 간증.

만민뉴스

제495호 2011년 8월 2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예배, 기도, 찬양... 만민은 정말 놀랍습니다”

스리랑카·파키스탄 목회자들 18박 19일간의 만민 체험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스리랑카·파키스탄 목회자들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목회 사역을 배우기 위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재록 목사님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직접 보았고, 말로만 듣던 기사와 표적, 권능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온 목회자들은 스리랑카의 닛산 쿠레이 목사(생명수 교단 디렉터/ 만민지교회), 패트릭 로렌스 신부(성 누가 교회/ 성공회), 안젤로 핀토 목사(와팔라포스퀘어 교회 당회장), 파키스탄의 샘스 제이콥 목사(CCCI 설립자 및 대표, 파키스탄 협력 선교사)이다.

스리랑카 목회자들은 2010년 4월과 9월, 2011년 5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세 차례의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행 19:11-12)에 참석하여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결 복음과 손수건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권능에 큰 감명을 받고 집회를 적극 후원하기도 했다.

일행은 지난 8월 14일 주일, 이재



왼쪽부터 인도 첸나이 만민교회 한정희 목사, 파키스탄 샘스 제이콥 목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 스리랑카 닛산 쿠레이 목사, 안젤로 핀토 목사, 패트릭 로렌스 성공회 신부

록 목사를 당회장실에서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날 스리랑카 목회자들은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 CD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현지에서 성회가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미 많은 만민 지교회가 생겼고, 만민과 협력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스리랑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샘스 제

이콥 목사는 파키스탄에 나타나는 무안단물(출 15:25)을 통한 역사와 자신의 체험을 간증했다(관련기사 4면). 끝으로 이 목사는 이들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주었다.

이들 일행은 주일·금요철야·수요예배, 다니엘철야 기도회, 만민 남녀선교회 하계수련회에 참석하고,

권능의 무안단물터를 찾았다. 이 밖에도 이 목사의 문서선교 사역을 도와 다국어 출판을 통해 전 세계에 성결 복음을 전하고 있는 편집국과 선교 관련 부서를 방문했다.

또한 우리 교회 부설 만민TV의 ‘크리스천 투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들의 신앙 간증과 더불어 만민의 사역이 스리랑카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

고 있다는 것을 전했다.

패트릭 로렌스 성공회 신부는 “만민교회에 직접 와 보니 예배, 기도, 찬양 등 모든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배 시종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찬양 가운데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교역자와 성도들의 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안젤로 핀토 목사는 “만민의 조직은 뛰어나며, 성도들의 팀워크가 매우 훌륭합니다. 극진히 섬겨 주시는 성도들에게서 주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예배, 기도, 성가대와 예능팀의 찬양과 무용, 하계수련회 등 만민의 사역을 캠퍼더로 촬영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의 남쪽 인도 해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전체 인구 약 2천만 명 중 불교와 이슬람교 신자가 75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스리랑카에는 이재록 목사의 영어판, 신앙 서적이 보급돼 있으며, 타밀어와 싱할라어 ‘만민뉴스’를 통해 성결 복음과 권능의 역사가 활발히 전해지고 있다.

“권능의 손수건 집회, 스리랑카에 영적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닛산 쿠레이 목사

2007년, 인도 첸나이 만민교회 한정희 목사님과 만민교회 선교팀을 통해 만민의 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 인도 첸나이 만민교회를 방문하여 이재록 목사의 설교 말씀과 선교 그리고 권능의 역사들을 듣고 보며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제 목회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 4월,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시에서 길태식 목사님(대전만민교회 담임)을 강사로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님은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에 대해 전한 뒤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목회자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어진 손수건 집회 시에는 악귀가 떠나가고 각색 질병이 치유되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그해 9월 콜

롬보와 인가리아 지역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가 열려 77개 교단 및 선교회에서 교역자 및 일꾼 약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온갖 질병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돌렸고 많은 교회가 만민의 자·협력교회로 가입했으며, 목회자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1년 5월 라돌루가마, 와팔라, 호라나, 콜롬보 지역 손수건 집회에서도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슬람교도, 불교도가 개종하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지바니)는 응고된 혈액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10퍼센트도 안 되고, 식물인간이나 하반신 마비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의 사진을 이재록 목사님께 보내 두 차례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은 뒤 아내는 신속하게 회복되어 곧 퇴원했고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만민의 사역을 알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획 특집 일곱교회

- 에베소 교회
- 서머나 교회
- 버가모 교회
- 두아디라 교회
- 사데 교회
- 빌라델비아 교회
- 라오디게아 교회

사데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2)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4-6)



당회장 이재록 목사

-
-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 가운데 사데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하셨습니다.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구원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데 교회에 주신 주님의 교훈을 통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1. 오늘날 사데 교회와 같은 경우

성령시대에 세워진 무수한 교회 가운데 사데 교회처럼 죽은 믿음을 소유한 교회와 성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삼일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주의 종도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양 때를 인도하는 목자가 먼저 참 믿음을 갖고 능력과 권세로써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가르쳐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지요. 단지 이론에 불과한 신학 지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므로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마 15:14). 이러한 주의 종에게 기도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리 없고, 교회 역시 성령의 불이 꺼져 성도의 영혼은 파리하여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흥은커녕 그저 소수의 성도를 유지하며 명목상 교회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속마음과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산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살아 있는 신앙, 곧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되도록 마음 가족을 베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하지 말라, 버리라.’하신 대로 불의, 불법 등 비진리를 벗어 버리고 ‘하라, 지키라.’하신 말씀대로 진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나감으로써 성결한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2.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사데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엄한 책망과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데 교회의 성도 중에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합당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 중에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되므로 사데 교회가 칭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옷은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뜻하므로 옷을 더럽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마음을 죄와 악으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또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림으로써 진리를 알기 전에 더럽혔던 마음을 깨끗이 하여 다시는 비진리와 더러운 죄악을 묻히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찌하든 깨어 기도하며 참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려는 성도들이 사데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약속하며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말씀하셨습니다(계 3:4).

물론 합당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들이 온전한 성결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데 교회의 환경 속에서도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한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데 교회 안에서 그나마 믿음을 지키며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신앙이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죄악에 물들고 세상과 짝하는 성도들뿐이니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켜 나간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발과 그릇에 따라 각기 다르게 연단하시는데,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며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더욱 깨어 기도하며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영적인 사랑이 자라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영혼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이므로 하늘나라에 상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요지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5536, 5615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안·청년·배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급으로 쌓이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더 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축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데 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 앞에서 합당하다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데 교회 안에서 합당한 자라 인정받은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 어느 처소에 들어가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천국 어디든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에 있다 해도 때때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낙원에 사는 영혼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으므로 민망하여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거나 함께 거닐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과 언제 어디든지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3천층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시지만 그중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성결한 사람과 동행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면 그에 따른 보장과 관세, 능력 등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4.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으며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사데 교회의 몇몇 성도들에게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기는 자

는 흰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흰옷이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입는 옷으로서 구원의 표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데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흰옷은 단순히 구원의 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성결한가'에 따라 주는 흰옷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일수록 더 밝고 영롱한 빛의 흰옷을 주시므로 천국에서는 옷만 보아도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거룩한 마음을 이루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옷에 부착하는 각종 장식을 통해서도 상급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아름다운 장식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흰옷을 주시는 것 외에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계 3:5). 사람이 호홉하고 있다고 해서 진정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만일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신 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해서 끝까지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보좌 대심판 때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펴셨을 때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바뀌 생각하면 한 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해도 흐려질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영생을 얻기 위한 길로 들어섰다 할 수 있지만 다시 그 길에서 이탈하면 성령이 소멸되고(살전 5:19) 생명책에서도 이름이 흐려집니다(출 32:33).

성경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등 현저한 육체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갈 5:19-21).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훼방하거나 거역, 모독하는 것(마 12:31-32; 눅 12:10), 성령에 참예한 후 타락함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것(히 6:6),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짓는 것(히 10:26)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망에 이르는가’ 하는 것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구원이란 단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 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자유 의지 가운데 구원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고, 지금은 구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 구원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5.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데 교회의 몇몇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될 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차 백보좌 대심판을 받으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천사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도 있지만, 각 사람을 감찰하는 사명을 맡은 천사(마 18:10)도 있어서 이러한 천사에 의해 기록된 모든 것이 백보좌 대심판 때에 증거 자료가 됩니다.

천사가 직접 나서서 증언하지 않는다 해도 그 정확한 기록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인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사데 교회에 대해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서신을 마무리하십니다. 사데 교회 성도들이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변화되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 번 호소하신 것입니다.

사데 교회의 성도는 대부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돌아키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진리를 이제는 행함으로써 산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구원받은 만한 믿음을 가진 몇몇 성도가 있다 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겨 나가야만 구원의 징표인 흰옷을 받으며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러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므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진리로 바르게 깨우쳐 주는 목자가 없으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며, 진리를 좇는 영혼들이 바른 길로 인도되어 더 좋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아 흠없는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을 온전히 갖추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토 러시아를 깨운

이재록 목사 초청 러시아 연합대성회



▶ 2003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상트 페테르부르크 올림픽 스타디움(S.K.K)에서 러시아 교회협의회(ACOR 회장: 이고르니키킨 목사) 주최로 열린 러시아 연합대성회는 잠들어 있던 러시아를 깨운 영적 대혁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수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이 성회는 러시아 뱀스키 TV와 OTB, TBN를 통해 러시아 전역에 생중계되었으며 12개의 위성과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TV로 전 세계 약 150개국에 보도되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August Programs



한여름 열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프로그램으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GCN 방송과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주요 프로그램

- 이재록 목사의 '창세기 강해'
- 남, 여장년 하계수련회 캠프파이어
- 6개연합 하계수련회 캠프파이어
- 특선영화 '왕중왕'

MANMIN TV 위성 및 인터넷TV 안내 1577-2073

“무안단물은 하나님 사랑의 선물입니다”

샘슨 제이콥 목사(CCCI: Christ's Commission Church International 설립자 및 대표, 파키스탄 협력 선교사)

먼저 무안단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파키스탄에서도 단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치료받음으로 선교가 더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시력저하와 발목 관절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올해 7월 말 한국에 올 때까지 해도 발목이 붓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잘 걷지도 못했지요. 하지만 저는 가족들에게 “한국에 가서 반드시 치료받고 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국 전 집에서 기도할 때 방 안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기에 더욱 확신하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 점광파크에서 열린 만민 남녀선교회 하계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만민 하계수련회 때마다 잠자리 때가 나타나 모기를 없애주고 성도들의 손, 머리, 어깨 등 몸 곳곳에 앉는 광경을 영상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수련회에 참석해 체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손에 얹은 잠자리가 무려 2시간 동안이나 머물렀기에 더욱 행복했습니다. 또한 기도회 시간에 어느 주의 종으로부터 권능의 손수건



(행 19:11-12) 기도를 받은 후 걷기가 좀 더 편해졌습니다.

8월 4일, 해외에서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수백 명의 교역자와 성도와 함께 전남 무안에 소재한 권능의 무안단물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단물을 마시고 눈에 바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력이 좋아져 작은 글씨까지 잘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단물에 침수할 때 물속에서 이재록 목사님 얼굴이 보이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근 후 치료받은 것처럼 저도 일곱 번 침수 후 10여 년 된 발목 관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잘 걷는 것은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파키스탄 나와즈 브하티 목사님이 답답하는 국제복음교회 성도들도 무안단물로 탈모증세, 치통 등을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번은 제가 카라치와 요한나바드 지역에서 설교 후 환자들에게 무안단물을 나눠 주고 기도해 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주목할 만한 간증이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스테파나라는 여 성도가 단물을 마시고 기도받은 후 말하고 잘 듣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단물로 치료받은 간증이 넘쳐나 선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전만민교회(담임 길태식 목사) 후원으로 파키스탄에서도 GCN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과 함께 만민중앙교회 주일예배와 금요철야예배를 드리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성결 복음으로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만나 협력 선교사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파킨슨병을 앓는 아버지의 굳은 혀가 풀렸습니다”

아쿠시치 카즈미 권찰
(일본 아마가타 만민교회)

저는 요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매우 행복합니다. 작년 6월에는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을 무안단물로 치료받아 창백한 얼굴에 혈색이 돌고, 수술 자국으로 주글주글한 얼굴이 펴졌습니다. 지난 8월 3일에는 아버지가 무안단물에 침수한 후 굳은 혀가 풀려 말을 잘하게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5년 전에 발병한 파킨슨병으로 인해 몸과 혀가 굳어갔습니다. 치료받기 전에는 한마디 말만 하려 해도 1분 정도 머뭇거렸고 아주 어눌했습니다. 저는 먼저 아버지께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며, 지난 해에는 위성 수신 안테나를 설치해 GCN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금식과 작정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만민 남녀선교회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기사를 체험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해외 손님들과 함께 권능의 현장인 무안단물터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단물에 일곱 번 침수한 후 상대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머니는 하리가 좀 구부정하고 등을 만져보면 두터운 근육이 잡혔었는데 단물에 몸을 담근 뒤 이런 증상이 사라지고 하리도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굳은 하리가 펴진 어머니(가운데), 파킨슨병으로 굳은 혀가 풀려 말할 수 있게 된 아버지(오른쪽)와 함께한 딸 아쿠시치 카즈미 권찰.



지난 8월 1일~3일, 해외 29개국 330여 명이 만민 남녀선교회 하계수련회에 참석했다. 다음날인 4일에는 기적의 현장인 무안단물터를 방문하여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단물을 마시고 바르며 침수를 통해 많은 응답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 직접 무릎을 꿇어 보이며 발목 관절 통증 치료 사실을 간증하는 샘슨 제이콥 목사(사진 맨 오른쪽).



• 무안단물:

출애굽기 15장 25절에는 모세의 기도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 마실 수 있게 된 사건이 나온다. 이와 같은 기적이 2000년 3월, 전남 무안만민교회에서도 일어났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무안만민교회 동산에서 퍼 올리는 바다의 잔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무안단물로 명명하고 있다.

무안단물은 미국 FDA(식품의약국) 검사 결과, 안전하고 우수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나 독일의 샘물보다 미네랄 함량이 월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물을 믿음으로 활용할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함께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있어 전 세계에서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성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새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82-5(3층) ☎042)527-2073, 010-7777-70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사창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정리 19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521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영암만민교회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47-11 ☎061)473-2707, 011-603-7766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900-2069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파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77-736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